# 자전거 열차가 나타났어요!

사진기자의 딴 짓

5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자전거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봄같은 따뜻한 날씨에 할아버지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얼굴이 정말 밝습니다. 도대체 이 놈들,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부러울게 없는 것 같네요.

지켜보는 부모들도 가슴 뿌듯해 하더군요.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의 따뜻한 날씨 덕에 눈썰매 한 번 태워주지 못하고 겨울을 보내 안타까웠다합니다.

하지만 있는데로 즐기는 아이들입니다. 자전거에 넓은 공터만 있어도 이렇게 마냥 좋아 하네요. 어른들은 이런 기분 모르겠죠.

이런 공간이나마 어른들의 자동차가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칫 이 아이들 놀이터가 사라질 지 몰라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운동장도 적게 만들어, 친구들끼리 축구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데, 그나마 있는 공간까지 빼앗는 나쁜 어른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지는 못할 망정 뺏지는 말아야죠.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I love MY student

#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장 경 옥
〈담양남면초등학교 병설인암분교장 유치원〉

나에게 깊은 소명감을 남겨 준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 이름은 김 하은!

하은이는 내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순천선혜학교에서 처음 맡게 된 5살 여자 아이다.

정신지체 부모를 둔 하은이를 처음 대면한 것은 입학식을 5일 넘긴 어느 날,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가정방문을 하게 되었다. 대문없는 알루미늄삿슈로 된 작은 문 앞에서 "하은아"하고 불렀을 때, "아아아"소리를 연신내며 무릎으로 걸어 나왔다. 그때의 모습이란… 방 안에는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그 속에서 헤짚고 나오는 하은이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며칠째 세수를 안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였지만, 하은이의 미소는 천사의 미소였으며, 나의 의지를 다짐해 주는 언약이었다.

하은이 엄마는 정신지체로 시계를 보지 못하므로 벽에 걸린 시계를 내려 8시 20분 시계바늘이 가르키는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주어 스티커 자리에 바늘이 오게 되면 하은이를 업고 나와 노란 학교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여 말 못하고, 걷지 못하는 하은이는 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되었으나, 부모가 정신지체여서 하은이의 뒤를 돌보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더욱 나를 당혹케 하였다.

따라서 하은이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를 찾아가 면담하고, 하은이의 첨족상태(까치발)를 치료하기 위해 성가롤로 병원에서 건 절제술을 받았다. 그 이후 하은이는 도교육청에서 제공해 준 장하지 보장구를 받아 혼자 설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하은이가 몸의 중심을 잡아 발을 한 발 내 딛게 되었을때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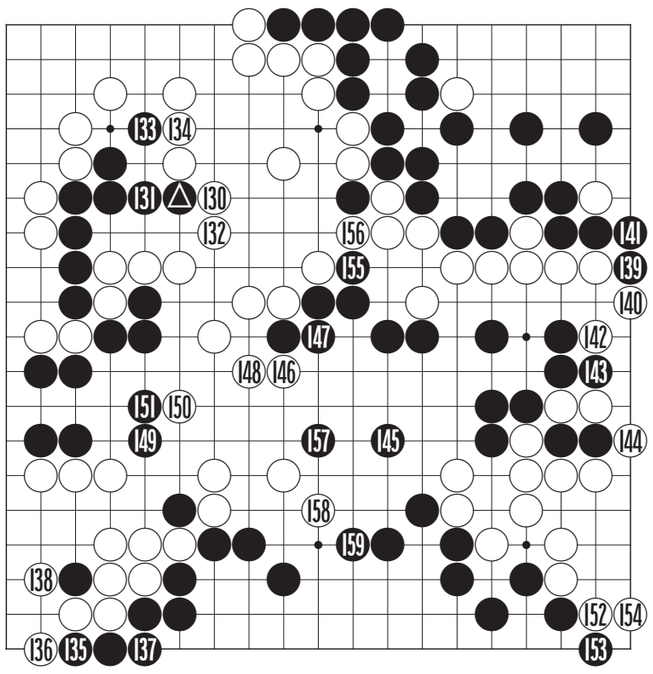
"하은이가 걸었어요, 보세요."하며 소리치자 학부모들이 몰려들어 기쁨을 같이했고, 그 순간의 희열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다.

하은이는 5년동안 깨지 못하는 알에 갇혀 있다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걷게 된 것이다. 그 이후 하은이는 절기는 했지만, 보장구 없이 날으는 솔개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걷게 되었다.

또한 하은이의 언어는 발음기관상의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입학당시에 "아아"소리밖에 못하는 상태였다. 다급한 마음에 언어치료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급에서 언어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되었다.

가을에 익은 과일에 대한 수업연구를 할 때의 일이다. 과일을 만져보고 이름과 모양, 색을 말하고 맛을 보게 했는데, 하은이는 이름을 말하고, 색을 찾아 수업참관 하는 교사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듬해 하은이는 다른 반으로 가게 되었고, 그 해 집 인근 인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이후 순천을 떠나온뒤 하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은이의 노력으로라면 얼마든지 일반교육의 현장에서 자신의 짐을 지고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은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비록 너의 짐이 무겁겠지만, 주위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선생님은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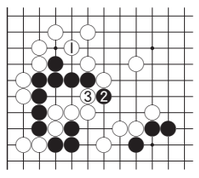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어린이 바둑대회

## 초등 최강부 결승전

### 어이없는 패착

9보(130~159)

白 박은찬 〈수문초 5〉 黑 강지수 〈주월초 6〉



〈참고도〉

요즘의 어린이들은 끝내기의 달인 이창호 9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끝내기에 매우 강하다. 본국의 두 어린이도 빈틈없는 끝내기로 살얼음판의 승부를 계속하고 있다.

흑 ▲는 평범한 끝내기. 지나가는 길에 선수행사를 해본 것에 불과한데 이 수가 결국 박은찬군의 결정적 실수를 부른 승착이 되었다.

백 132가 믿기힘든 어이없는 패착으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지킬 자리. 흑 2로 젖히는 것은 3으로 끊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 실전은 백 133을 당해 실전과 비교해 석집 손해로 이 차이가 완전히 승부를 갈랐다. 결과는 흑의 넉집반 승이었으니 이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지나가는 길의 응수타진 하나로 승세를 확립한 강지수군은 이후 우변 139에 젖혀이어 승리를 결정짓는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 바둑소식

### 백성호, 전자랜드배 현무부 우승

백성호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현무부 결승에서 김종준 5단을 303수 끝에 흑 14집 반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바둑리그에서 광주 KIXX 감독으로 우승을 이끌었던 백 9단은 이번 우승의 여세를 몰아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패권에 도전한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광주 출신 오규철 9단은 8강전에서 이홍렬 9단에게 발목을 잡혀 아쉬움을 남겼다.

현무부는 만 51세 이상 기사들이 출전하는 제한기전이며, 우승상금은 7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뉴스퀴즈

50. 40억 아시아인들의 겨울철 스포츠 축제인 제6회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이 4일 끝났습니다.

26개국 1천100여 선수·임원이 참가해 얼음판과 눈밭에서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9개·은 13개·동메달 11개를 따냈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대회 막판 일본에 추월당하며 지난 1999년 강원도 용평 대회 이후 3회 연속 2위 달성 꿈을 접게 됐습니다.

한국의 최종 성적은 몇 위일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2월 19일 辛未)

**子** 36년생 오전은 편안하지만 오후는 바빠지리라. 48년생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변사람을 성의껏 도우면 자연스레 득재 하리라. 60년생 꼭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 72년생 분주한 하루로다. 84년생 옛 일이 괴롭힌다. 행운의 숫자 : 21, 25

**丑** 37년생 주변이 변화하니 대안을 마련하라. 49년생 직업직장 변동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보답을 바라지 말고 도우라. 73년생 차근차근 전진하면 큰 발전이 있을 수다. 8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실행은 빠르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8, 37

**寅** 38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니 준비하고 있으라. 50년생 춤추고 노래하나 마음이 무겁다. 62년생 나이에 관계치 말고 뜨겁게 진행하라. 74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쨍하니 해가 뜨리니 미리미리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卯** 39년생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니 생각대로 행하라. 51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기만 하구나. 63년생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니 감사하며 지내라. 75년생 뜻밖의 재난을 만나도 대비하고 있으면 큰 고생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7, 40

**辰** 40년생 상대의 고민을 도우면 자신도 평안하다. 52년생 딸들을 살펴보라 대고가 발생 할 수다. 64년생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라 고민이 커진다. 76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니 원만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巳** 41년생 근친자와의 돈거래는 신용상실의 실마리다. 53년생 양보 하면 쉬운 일이 고집으로 인해서 꼬일 수 있다. 65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7년생 외로운 독신자는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4, 38

**午** 42년생 새벽녘의 화재가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4년생 허황된 일을 벌이지 마라 망신살이 옆에 있다. 66년생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78년생 억울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라 저절로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7, 29

**未** 43년생 시비는 무례한 언동에서 발생하니 생각하고 말하라. 55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67년생 몸은 고달프나 마음은 평안하니 가족을 둘러보라. 79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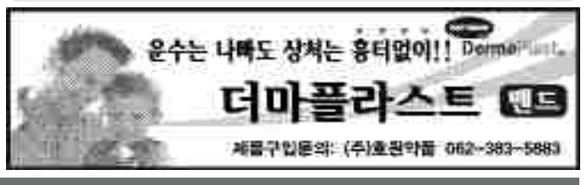
**申** 44년생 먼 곳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니 기쁜 날이다. 56년생 말다툼만 피하면 평화스런 하루로다. 68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울린다. 80년생 솔로는 외출하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26

**酉** 45년생 어른이 안 보인다. 두루두루 살펴보라. 57년생 속단은 이르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 69년생 外麗內虛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리로다. 81년생 잔치 집에 가지만 마음은 무겁다. 행운의 숫자 : 01, 35

**戌** 46년생 진행하는 일을 한번 더 살펴보라. 58년생 아내를 살펴보라 대고가 있을 수다. 70년생 아들이 고민한다. 고민을 들어보라. 82년생 부모님을 찾아뵙고 건강을 살펴보라 활동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2

**亥** 47년생 외출할 때 차량을 주의하면 소화에 그치리라. 59년생 행한 일을 생각해보라 큰 화의 불씨가 보인다. 71년생 뜬 구름은 잡히지 않으니 생각지도 말아라. 83년생 상대를 힘들게 하면 자신은 더욱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 굿모닝 잉글리쉬 <835>

### That'll fill the bill

그거면 됐어

A:There's a welcoming party for the foreign students. We need some kind of entertainment.
B:Do you have any good ideas?
A:Why not have a group of drummers?
B:Yes, **that'll fill the bill.**

A:유학생 환영 파티가 있는데, 약간의 여흥 같은 것이 필요한데 말이야.
B: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나?
A:북 연주는 어때?
B:좋아, **그거면 됐어.**

That'll fill the bill(그걸로 충분해. 그거면 됐어!)
=That'll be all.
=That's should be enough
= That'll do just fine.
= That'll serve the purpos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 오하요우 니혼고 <835>

### ちょっと遅(おく)れてるみたい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A:到着(とうちゃく)した?
B:**ちょっと遅(おく)れてるみたい。**
A:もうすぐ着(つ)くよ。
B:ランプがついた。
A:着(つ)いたらしいよ。

A:도착했어?
B:**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A:금방 도착할 거야.
B:램프가 들어왔다.
A:도착한 것 같다.

遅(おく)れてる-->遅(おく)れている
時間(じかん)に遅(おく)れる : 시간에 늦어지다
約束(やくそく)に遅(おく)れる : 약속에 늦어지다
らしい(~~인 것 같다)는 みたい와 비슷한 표현인데 회화체에서 더 많이 사용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 니하오 쭝구워 <26>

### 到时候我们一起去接他

그때 같이 마중 나가요

A 小英什么时候到长沙?
Xiǎoyīngshénmeshíhoudaochángshā?
샤오잉은 언제 창사에 도착하죠?
B : 她打算下个星期三来。
Tātǎsuànxiàgexīngqīsānlái.
샤오잉은 다음 주 수요일에 올 거래요.
A 星期三我们到时候一起去接她吧。
xīngqīsān wǒmēishíhòu yìqǐqù jiētāba
수요일에 우리 시간 있을 때 같이 마중 나가요.
B : 嗯、到时候我们一起去接她吧。
ng dàoshíhou wǒmen yìqǐqù jiētāba
응, 그때 같이 마중 나가요.

长沙 [chángshā] 창사(지명이름)
打算 [dǎsuàn] ~할 작정이다
来 [lái] 오다, 돌아오다
接 [jiē] 마중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 한자 이야기 <453>

### 酒池肉林 (주지육림)

술 주, 못 지, 고기 육, 수풀 림

주지육림(酒池肉林)은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매우 호사스럽고 방탕한 주연(酒宴)을 비유한다.

고대 중국의 하(夏)나라를 망하게 한 걸왕(桀王)과 은(殷)나라를 망하게 한 주왕(紂王)은 본래 지용(智勇)을 겸비한 현명한 임금이었으나, 말희(□喜)와 달기(妲己)라는 요녀(妖女) 독부(毒婦)에게 빠져 사치와 주색을 탐닉하다가 결국 폭군음주(暴君淫主)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걸왕을 현혹(眩惑)한 말희는 날마다 벌어지는 무악(舞樂)에도 싫증을 느껴 궁정 한 모퉁이에 큰 못을 파고 새하얀 모래로 바닥을 깐 다음 향기로운 미주(美酒)를 가득 채우고, 못 둘레에는 고기로 동산을 쌓고 포육(脯肉)으로 숲을 만들게 부탁하였다. 또 주왕도 달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호화찬란한 궁정을 짓고 미주와 포육으로 '주지육림'을 만들었으며, 못 둘레에서는 남녀가 벌거벗고 그 사이에서 밤낮없이 술을 퍼마시며 즐겼다고 한다.

이 같은 사치와 방탕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력은 피폐하고 백성의 원망은 하늘에 닿아 결국 걸왕은 은나라 탕왕(湯王)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왕은 주나라 무왕(武王)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사기·史記)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